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Office : 02)560-4434 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’ 3R 주요 선수 코멘트**

**김민주, 방신실, 김수지, 유현조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|
| 2 | 기 간 | 2025년 7월 10일(목) ~ 7월 13일(일) |
| 3 | 장 소 | 하이원 컨트리클럽 [마운틴(OUT) / 밸리(IN)]  |
| 4 | 주 최 | 하이원리조트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544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08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고지우, 박혜준, 이예원, 홍정민, 이동은, 노승희, 이가영, 방신실, 김민선7, 박현경정윤지, 김민주, 박보겸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정지효, 배소현, 이다연, 서교림한진선, 임희정, 이정은6, 김정현, 오수민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3라운드] 10시 ~ 16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김민주, 3라운드 중간합계 12언더파 135타(71-64-69) \*단독 선두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081>

**[코멘트-대회조직위 제공]**

**Q. 경기 소감**

A. 일단 선두로 출발하는 상황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다. 그래도 '변하는 건 없다'고 생각하고 즐겁게 플레이하려고 했다.

**Q. 어제 본인 경기를 평가할 때 아이언 샷이 좀 날카롭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, 오늘은 어땠는지?**

A. 오늘도 똑같았다. 그래서 파3홀에서 오른쪽으로 미스하는 상황이 계속 나왔다. 그래도 심각한 상황은 없어서 쉽게 파세이브 하면서 갔다.

**Q. 잘하고 있는 이유는?**

A. 잘 하고 있는 것은 맞다. 쇼트 게임을 계속 하다보니깐 세이브 하기가 좀 더 쉬워진 것 같다.

**Q. 코스에 대한 생각은?**

A. 티샷을 조금 미스해도 그린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찬스라고 생각해서 장타자에게 유리한 코스는 맞는 것 같다.

**Q. 최종라운드 전략은?**

A. 최대한 웨지가 잡히는 홀에서는 버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웨지 샷의 정확도와 버디 찬스가 왔을 때 퍼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. 그래서 5m 안쪽 찬스가 왔을 때 최대한 성공시킬 수 있도록 퍼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. 오늘 끝나고 퍼트 연습할 생각이다.

**Q. 각오 한마디**

A. 우승하겠다. 오랜만에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게 됐는데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것처럼 차분하게 나만의 플레이를 해서 우승하겠다. 열심히 해서 내일도 다시 인터뷰하겠다.

**◈ 방신실 3라운드 중간합계 10언더파 206타(70-70-66) \*단독 2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095>

**Q. 경기 소감은?**

오늘은 아이언샷 감이 매우 좋아서 많은 버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. 특히, 파5홀에서 '비거리'라는 장점을 잘 살려 찬스를 만들었고, 결국 많은 타수를 줄였던 라운드였다. 퍼트도 나쁘진 않았지만 약간 아쉬웠는데, 무엇보다 샷이 큰 역할을 했다.

**Q. 이번 대회를 위해 클럽 세팅을 다르게 했나?**

올 시즌 내내 같은 클럽을 사용해왔지만, 이번 대회는 고지대 코스라는 점을 고려해 아이언 로프트를 1도씩 눕혀 조정했다. 그 덕분에 아이언 샷의 거리감을 일정하게 맞출 수 있었다.

**Q. 평소에도 피팅 조정을 자주 하는가?**

필요할 때마다 투어 밴에서 수치와 데이터를 보고 조정한다. 비거리가 많이 나올 때는 몸 상태가 좋거나, 날씨가 따뜻해져 클럽 페이스가 눕는 영향도 있다. 롯데오픈 대회 때부터 로프트를 눕혀 사용 중이다.

**Q. 6번홀에서 보기를 기록했는데, 그 상황은 기억나나?**

솔직히 기억하고 싶지 않다. 하지만 그런 실수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, 이후 흐름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.

다만 1~3라운드 모두 터무니없는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은 줄이고 싶다.

**Q. 최종라운드에서 우승 경쟁에 대한 생각은?**

물론, 2승 도전을 의식할 수도 있지만, 스스로 조급해지지 않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려 한다. 하이원 코스는 정교하고 영리한 플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에, 내일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경기에 임하겠다.

**Q. 컨디션 괜찮은가?**

지난주는 매우 덥고 습했지만 그럼에도 잘 해냈기 때문에, 오히려 이번 주는 더 수월하다. 체력적으로 큰 부담은 없다.

**Q. 최근 손목 부상도 있었다고 들었다. 샷에 지장은 없나?**

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하고 있고, 연습량을 조절하고 있다. 신경은 쓰이지만 경기에 큰 지장은 없다.

**Q. 내일 경기를 치르며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?**

하이원 코스는 짧지만 페어웨이가 매우 타이트하다. 그래서 티샷을 할 때마다 긴장된다.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하여 최대한 페어웨이를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. 또한 파5홀 모두 찬스 홀이기 때문에, 그 홀에서 기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.

**◈ 김수지 3라운드 중간합계 9언더파 207타(71-69-67) \*단독 3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300>

**Q. 오늘 경기 소감은?**

현재 샷감도 좋고 버디도 많이 잡으면서 마무리를 잘해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였다.

**Q. 시원한 날씨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은데, 맥콜 모나 오픈 대회가 플레이의 전환점이 되었나?**

용평도 시원했고 그 대회를 계기로 샷감이 점점 올라왔다. 그때 이후로 샷이 좋아지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.

**Q. 현재 몸 상태나 컨디션은 어떤가?**

컨디션은 좋은 편이다. 날씨도 시원하니 그냥 가을이 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플레이할 예정이다.

**Q. 내일 전략은?**

바람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. 내일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한다. 샷감은 좋기 때문에 내일도 찬스가 많이 온다면 오늘만큼 잘 칠 수 있다고 믿는다. 최선을 다하겠다.

**◈ 유현조 3라운드 중간합계 8언더파 208타(70-71-67) \*공동 4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46>

**Q. 경기 소감은?**

초반부터 연속으로 버디를 잡으면서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시작했다.

중간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, 마지막 네 홀에서 두 개의 버디를 추가하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다.

**Q. 내일 우승 경쟁에 나서게 되는데?**

아직 선두권 선수들의 경기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타수 차는 알 수 없지만, 우승하기 위해서 남은 힘을 다 끌어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다.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예정이다.